

Franciscan Living

From Gospel to My Life and My Life to the Gospel

By Francine Gikow, OFS

나는 강도에게 희생자된 한 남자였다.. 나는 발가벗겨졌고, 매를 맞고 반쯤 죽은채 버려졌다. 한 사제가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고 나는 생각했다, "저분은 종교교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나를 도와줄거야.." 그러나 그 사제는 그냥 지나칠 뿐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전염병이라도 앓고 있다는 듯이 다른 길로 돌아가버렸다! 다시 똑같은 일이 레위사람-유대 신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한 자-과도 반복됐다.. 같은 결과 -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피하고 내게 다가오기를 거부했다! 난 버려지고, 눈에 띄지도 않고 방치되어 버린 기분이었다.. 내가 친구라고 믿어온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낯선 이민자가 다가왔다. 나를 도와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고 다시 천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사실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강탈당해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전부 지불해주었다! 그는 나를 희생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봐주었다. 그는 내가 다시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었다.

나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 강도질을 당해 생계수단과 건강마저 잃어버린 이 남자의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게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의 사회안에서 소위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반납하게 되었을때 그는 얼마나 실망하게 되었을까. 그는 이 낯선 이민자의 인간미와 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 오, 다른 사람들은 하기를 거부하는 무엇인가를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렇게 완벽하게 낯선 사람을 보내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니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그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는 이 기분 안에서 한 동안 머물러 앉아있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가 만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좀 더 예민하기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들어주는 귀가 되어주거나 돌보아주는 손길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예민해지기로 결심하고 묵상을 마쳤다. -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배려하려하기로 말이다.

이것은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복음 말씀에 관한 나의 하느님과의 개인적 묵상/대화이다. 나는 클라라 성녀의 묵상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마치 당신이 그분을 따라하듯이 하느님을 응시하여 바라보고, 깊게 고찰하고, 관상한다. 중세적 감성 안에서 '응시'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바라다 보는 것'으로 더 많은 감각들을 끌어모으게 한다; 청각, 상상적인 시각, 촉각과 후각. '고찰'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고찰해보라..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영감이나 생각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함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신 것에 대한 해결방법인 반면에, '관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적적인 프란치스코인들의 묵상이다. 실제로 성 프란치스코는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묵상으로 들어가, 그레치오(Greccio)에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만들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성경을 읽고 이와 같이 묵상을 하는가? 당신은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복음들이 당신의 삶을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가? 복음들이 당신을 유하게 하고, 이끌어주고, 변화를 시키는가?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프란치스코인으로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가?

'우리 규칙의 삶의 방법' 가장 첫절은 이와 같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수하고... 그리고 재속 프란치스코인으로 복음을 읽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바쳐야한다" (규칙 2:4)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되도록이면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방법이기때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한다.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묵상기도는 지적인 연습으로서의 성경공부와는 다르다.(성경공부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인으로서 우리의 성경적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당신에게 그 구절의 의미인지에 관하여 하느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가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관계가 전부이다 - 우리에게 얘기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렇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 우리는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여,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이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만 한다. 그저 우리 주님과 앉아있을 시간,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시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시도록 기회를 드려라...